

‘따스한 재생’ 강원국제트리엔날레 개막



1 옛 탄약공장 앞에 세워진 예술작품 2, 3 예술공간으로 탈바꿈한 옛 정비공장

국내 첫 노마딕 시각예술축제인 강원국제트리엔날레가 9월 30일부터 11월 7일까지 홍천군 결운리 옛 군부대 탄약정비공장과 폐교한 와동분교, 홍천중앙시장, 홍천미술관 일대에서 펼쳐진다.

이 행사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레거시 사업으로 출발했던 강원국제예술제 3년차 완결판이다. 강원국제예술제는 강원도 전역의 예술 공헌화를 목표로 3년 단위로 순회하는 노마딕 트리엔날레다. 앞서 2019년 홍천에서 첫 개최가 이뤄진 이후 2년간 강원작가전, 강원키즈트리엔날레가 열렸다. 지난해 강원키즈트리엔날레는 국내 첫 어린이 시각예술축제로 18일간 열려 오프라인 전시장에만 1만3천859명이 찾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올해 행사는 지난해 활용했던 공간 3곳에 홍천 중앙시장이 추가돼 4곳에서 열린다. 주제는 ‘따스한 재생’(Warm Revitalization)으로 기술, 생태, 일상, 지역을 주제화한 6대륙 37개국의 국내외 작가 100팀이 120여점의 출품작을 선보인다.

행사장인 탄약정비공장은 ‘재생1 탄약’, 와동분교는 ‘재생2 와동’, 홍천미술관은 ‘재생3 아카이브’, 홍천중앙시장은 ‘재생4 스트리트’로 전시라는 말 대신 재생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군 유휴지인 탄약정비공장과 폐교인 와동분교는 예술전시장으로 변모해 특색 있는 조형물로 가득하다. 와동분교는 한국전쟁 직후인 1954년 개교 후 62년의 역사를 끝으로 2015년 폐교한 곳으로, 생태 위주의 작품으로 구성된 예술학교로 탈바꿈했다.

운동장에서는 ‘말풍선 모양의 연못’과 ‘건축형 카페 파빌리온’ 등 이색적인 조형물을 볼 수 있다. 주변 야외 공간에 선보이는 ‘반원기둥형 식물 파빌리온’인 비닐하우스에 네 잎 클로버, 야생화, 옥수수 등 작물과 다양한 장르 미술이 맞물린 에코-아트는 눈길을 사로잡는다.

삭막했던 교실은 생태를 주제로 한 작가들의 회화, 영상 등이 이색 볼거리를 선사한다. 1973년 준공된 이후 20년간 폐쇄됐던 군부대 탄약정비공장의 녹슬었던 장비가 미술처럼 되살아났다. 연변장 주변에는 비탈진 공간에 데크 전망대와 예술작품이 한데 어우러져 있다.

또 홍천읍 도심 옛 상하수도사업소를 리모델링한 홍천미술관과 중앙시장에 아카이브, 강원도민 생활유물 공모 작품, 커뮤니티 아트 등을 만나볼 수 있다.

김성호 예술감독은 “예술을 통한 ‘기술, 생태, 일상, 지역’의 재생을 도모하는 것이며 이것을 위해 ‘에코-테크 아트’와 일상, 지역의 담론, 생태와 기술 비평 담론을 미술 행사와 접목해서 건강한 이슈 생산을 지향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



1980년대 홍천전통시장

어제도 오늘도 군민과 함께 해온 홍천전통시장!
내일도 함께라면 좋겠습니다.



2020년대 홍천전통시장